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3일 화요일 음 3월 19일 (11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호리고 아침부터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16℃, 낮 최고기온은 19-22℃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2.5m로 일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y (60%) and wind directions (성산, 고산, 서귀포).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5:55), sunset (19:10), moonrise (23:09), and moonset (08:42).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omorrow (호리고 비, 17/23℃) and the day after (구름 많음, 14/19℃).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Rows show food safety (식중독지수 주의) and allergy (감기가능지수 낮음).

월드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국 전역 확산

최남단 하이난서도 발병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돼지고기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내 돼지 사육.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는 중국 최남단인 하이난(海南)성 6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해 146마리의 돼지가 죽었다고 전날 밝혔다.

중국 내 돼지 사육.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100%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도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중국 북부 라오닝(遼寧)성의 한 농가에서 처음 발병한 후 9개월도 못 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 내 31개 성·직할시·자치구로 모두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인해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6.3%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7.6% 상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돼지의 고기, 분비물 등을 통해 직접 전파되며, 음수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되

중국이 전 세계 돼지의 절반가량을 사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한라칼럼



이 남 호

화학·코스메틱학과 교수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정한 기념일로 올해로 52회를 맞았다. 이 날을 전후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올해도 정부 차원의 과학축제가 서울 종로의 도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적으로 62개 기관에서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기도 한다.

제주지역 과학기술상에 대한 생각

령상이 수여된다.

IT·BT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한 지 오래다. 4차 산업혁명시대인 현재 IT 기술이 사회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컴퓨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끄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100세 시대를 열어가갈 수 있는 것은 바이오 기술 등의 발전 때문이다. 변방의 유배지였던 제주도는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다.

로 세계적인 입지를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인력양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버팀목이 된 것이다.

지역기반 과학기술도 중요하다.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산업과 지역 생활인프라를 견인하는 고유의 특화 기술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전기차, 블록체인, 청정푸드, 화장품 등 미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우수 과학자를 발굴하여 과학상을 수여하며 격려하고 있다.

열린마당

소화전은 소방차에 양보해 주세요



장 영 훈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화재 발생 시 5분이 지나면 불이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차들은 도로위의 정적을 깨는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붉은 불빛을 내며 현장 도착을 위해 도로 위를 달린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출동 대원들을 괴롭히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소방차 진입로근처에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량이다. 그로 인해 화재가 난 곳에 많은 소방차들이 도착해 있지만 검은 연기를 앞에 보고도 현장에 진입을 하지 못한다.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4월 17일부터 4대 절대 불발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과 범국민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이내 ④횡단보도 주·정차 할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는가 하면 잘 띄도록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곧 개정 예정이다.

차량이 많아지고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여 불법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 중에 소화전이 옆에 있을 경우 과태료 때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화재로부터 안전을 위해 '소화전 옆은 소방차에게 양보'해주는 것이 좋겠다.

열린마당

V-PASS, 안전을 향해 나아가다



이 성 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봄바람이 가득한 제주, 하지만 바다날씨는 아직 변덕스럽기만 하다. 지난 4월초 삼양포구 앞 해상에서 선장 1명이 탄 소형어선이 전복됐을 때가 특히 그랬다. 당시 어선은 닻을 올리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옆 파도를 맞아 전복돼 자동위발신 장치(V-PASS)의 SOS 신호가 발생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신호가 발생한 해상 인근으로 경비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집중수색을 했고 사고발생 55분 만에 고무헨다에 의지해 표류하고 있던 선장을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나 홀로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전복사고라서 차질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자동위발신 장치의 SOS 신호 덕분에 비록 어선은 침몰했지만 선장은 무사히 구조된 것이다.

자동위발신 장치는 어선의 위치 등을 자동으로 발신하는 무선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출·입항할 때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편의를 위해 만들어 졌다.

이후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선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게 조난신호버튼 등 부가기능을 추가해 활용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런 자동위발신 장치의 기능에 조업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일부 해양종사자들이 고의로 전원을 차단하기도 한다. 이는 해양에서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

앞서 본 사고사례에서 보듯이 자동위발신 장치를 활용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만약 전원이 차단되어 있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지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선을 운항하는 해양종사자는 출항 전 자동위발신 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SOS버튼을 눌러 해양 안전을 확보해야 하겠다.

Jeju Provincial Government notice regarding agricultural support and other programs.

Jeju City Government notice regarding the 2019 Jeju Distance Festival and other events.

Seogwi County Government notice regarding the 8th Seogwi Art Festival and other activities.

Jeju Agricultural and Fisheries Extension Station notice regarding the 5th Jeju Agricultural and Fisheries Extension Fair.